

완도 납도초, 추석맞이 전통음식·전통놀이 체험 실시

추석 맛이 나눔·공감으로 가족사랑 이웃사랑 실천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사랑 8호 선원들에 감사 전해

“예쁜 한복 입고 학교에 오는데 정말 좋아요, 송편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저녁에 강강술래도 한다는게 정말 기대돼요” 아이들은 추석맞이 행사를 위해 고운 옷을 입고 아침부터 한껏 들떠 있었다.

납도초등학교서리분교장은 우리나라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이하여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편을 빚고 지역민들과 함께 나눠 먹는 행사를 해마다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송편 빚기에 더해 예쁜 산적조치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는

미풍양속을 설명하고 산적조치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버섯, 햄, 맛살, 파, 돼지고기를 골고루 이주시기에 쪄왔다. 알록달록한 재료를 노란색 계란물에 묻혀 기름에 튀겨 완성된 음식을 보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맛있게 나눠먹었다. 그리고 이웃에게 드릴 오색송편과 산적조치를 준비하여 아이들 각 가정과 섬마을 학교 주변 보건소, 교회에 전달하고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항구에서 기다리다 우리 지역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사랑 8호 선원들에게 우리가 만든 음식을 전하며 평소 고마움과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을 표현하였다.

이어서 이순신 장군이 강강술래를 했던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통놀이를 체험하였다. 보름달 아래에서 유치원, 초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손을 잡고 동그란 원을 만들어 강강술래를 하고 달팽이 모양을 만드는 덕석물이를 하였다. 5학년 김○○ 아버님께서 추석명절에 하는 전통행사를 학교에서 체험하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인성교육에 참 좋은 것 같이라며 늘 응원하고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마지막은 불꽃놀이를 하며 하늘 높이 치솟는 오색찬란한 불꽃들을 보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걱정과 근심을 털어내고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덕담을 하며 추석맞이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교육청, 추석 명절 전통시장 체험·청렴 캠페인



해남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해남읍 매일시장에 방문하여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행사'와 '청렴 캠페인'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품 전달·격려

인'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6일과 9월 7일 2일에 걸쳐 해남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직원들이 일 년 동안 모금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고물가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착한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이용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해남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전통시장에서도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

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 및 지역농산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과의 소박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민들이 청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청렴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청렴 해남교육 실현'의지를 다지는 '청렴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조영천 교육장은 "민족 대명절을 맞아 외롭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눔과 배려,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넉넉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면서 "올해 추석은 모두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교육청, 전직원 대상 청렴 캠페인



진도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청사 입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설 명절 청렴 캠페인(1월), 전

직원 대상 청렴 머그컵 제작(3월)에 이어 진도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청렴 활동의 일환에서 실시되었으며 오미선 교육장과, 구경석 교육지원과장, 고영우 행정지원과장이 참여했다.

2022년 9월 1일 진도교육지원청에 취임한 오미선 교육장은 이날 출근하는 전 직원을 일일이 마주하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부패공익신고, 부당지시 감절 근절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청렴 실천 참여를 독려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져 청렴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광양중마유치원, '떡메치기·강정만들기' 체험

유치원-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광양중마유치원은 지난 8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유치원-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유치원으로 찾아오는 '떡메치기와 강정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만5세 유아들은 떡메치는 방법과 자세도 멋지게 잡아보며 떡메로 떡 반죽을 만들었다. 쫄쫄득득한 떡을 직접 만들고 콩고물에 묻혀 바로 인절미를 만들어 맛보며 한국 전통의 맛을

경험하였다.

만 3, 4세 유아들은 고소하게 튀긴 쌀 과자에 광양지역에서 나오는 밤, 깨, 땅콩에 뜨거운 매실조정을 넣어 골고루 버무린 뒤 두 손으로 동그렇게 굴려 다양한 모양의 강정을 만들었다. 유아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강정 만들기 체험을 하며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엄마, 아빠랑 먹을 거예요"라며 쌀 과자가 강정으로 딱딱하게 굳어 가는 과정을 신기해하며 즐거워하였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교감 대상 연수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초·중·고·각종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지난 8일 비대면 역량 강화 연수를 가졌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을 처벌하는 방식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이해하고, 자기조절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차별을 먹고 자라는 불평등, 존중을 먹고 자라는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안내와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중요



확인 사항 안내, 아동학대 예방, 체험학습 예산 사용 관련 주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재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